

K-기업, 국내외 생산기지 ‘통 큰 투자’ 초고압 변압기 등 수주 여력 높인다



〈유투이미지〉

전력기기업체 ‘몸집 불리기’

HD현대일렉트릭

내년 초까지 4000억 투자 계획

효성중공업

멤피스 공장 증설… 시장 1위 도전

LS일렉트릭

텍사스에 ‘배스트럽 캠퍼스’ 조성



HD현대일렉트릭 미국 알라바마 법인 전경



/HD현대 효성중공업 미국 테네시 멤피스 초고압변압기 공장 전경.

변압기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기기업체들이 국내는 물론 미국 현지에 생산기지를 증설하는 데 분주하다. 노후 송전망 교체가 본격화된 미국에서는 변압기 수요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내 노후 전력기기 교체 수요가 많아진 데다 인공지능(AI)산업 급성장으로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초고압 변압기 시장이 커지고 있다. 전력인프라감시·감독 기구 북미전력안정회사는 미국 전력 수요가 2030년 5000TWh, 2034년에는 5353TWh에 달할 것으로 진단했다. 미국의 연간 총 소비전력 또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2년~2021년간 4000TWh(테라와트시) 미만이었던 미국의 연간 전력 소비량은 지난 2022년 들어 4000TWh를 돌파한 뒤 지난해 4097TWh로 증가했다.

◆ 시장 선점 위해 공장 증설 박차

HD현대일렉트릭의 1분기 매출은 1조 146억원으로 이 가운데 내수는 약 2030억원,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117억원으로 집계됐다. 수출 매출의 약 44%가 미국향으로 넥스테라에너

지, 플로리다파워앤라이트, 아메리칸일렉트릭파워 등 북미 전력회사가 주요 고객으로 꼽힌다.

효성중공업 또한 지난해 매출액 5조 4500억원을 기록했는데 이 중 미국향 매출액이 17.4%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LS일렉트릭의 1분기 매출액은 7382억원이며 이 가운데 수출이 차지하는 금액은 약 3195억원이다. 또 미국 법인 LS일렉트릭 아메리카를 통한 매출이 1137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15.4%를 차지한다. 전체 수출액 가운데 약 36%가 미국향인 셈이다.

미국은 국산변압기 수출비중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핵심 시장이다. 미국 빅테크 업체 대부분이 전력기기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어 앞으로도 수주 기회가 열린 시장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현지 생산물량 확대가 현재로서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이에 발맞춰 우리 기업들은 미국 현지 공장 증설에 지속 투자를 하는 모습이다. HD현대일렉트릭은 미국 앨라배마와 울산 변압기 공장 증설을 위해 2026년 초까지 4000억원 가량 투자를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17년 HD현대일렉트릭이 HD현대중공업에서 분사한 이후 최대 규모 투자로 2023년 전체 영업이익인 3152억원을 웃도는 규모다.

효성중공업은 미국 멤피스 공장 증설을 위해 720억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오는 2027년까지 미국 대형 변압기 시장에서 1위 업체로 도약할 계획이다. 신공장이 완성되면 120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LS일렉트릭은 미국 내 변압기 전용 공장은 없는 상태다. 다만 지난해 부산 사업장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1008억원을 투자했으며 또 미국 건설 계획을 밝히진 않았으나 텍사스에 부지를 확보하는 등 미국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한 상태다. LS일렉트릭은 지난 4월 미국 텍사스주에 배스트럽시에 전력기기 생산과 연구, 설계 시설 등을 갖춘 ‘배스트럽 캠퍼스’ 조성을 마쳤다. 앞으로 LS일렉트릭은 2030년까지 2억 4000만 달러를 추가 투자해 생산 시설 확충을 한다는 계획이다. 회사가 지난달 미국 빅테크 데이터센터와 체결한 1625억원

규모의 배전반 및 전력기기 공급 계약 물량도 이곳에서 생산할 예정이다.

◆ 공급자 우위… ‘트럼프관세’ 돌파

당초 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관세 부과를 공식화하면서 글로벌 무역전쟁에 불을 지폈지만 전력인프라기업 중 현지에서 생산시설을 보유한 효성중공업과 HD현대일렉트릭은 관세 영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것으로 분석된다.

LS일렉트릭은 미국 현지에 변압기 전용 생산시설이 없어 16.87%의 반덤핑 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다만 해당 반덤핑 관정과 관련한 비용 인식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함께 따른다. 현재 미국 내 변압기 공급 부족으로 ‘쇼티지’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공급자 우위 시장이기에 관세 부담도 가격 인상 전가를 통해 흡수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김태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2분기에도 업계의 큰 폭의 실적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미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와 맞물려 수주 증가 여력도 높다고 판단된

다”라며 “특히 미국에서는 초고압차단기 수주가 본격화되고 있어 포트폴리오 다변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1면 ‘AI 서버 투자…’서 계속

정부 정책 등 우호적 환경 “수주확대 흐름 이어질 것”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재차 밝히 미국 시장의 호황 전망과 공급자 우위의 시장 구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커졌고 수요위축 우려의 일정 부분을 해소하고 있다는 게 업계 안팎의 중론이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리서치네스터는 변압기 시장의 세계 시장 규모는 지난해 약 337억7000만달러(한화 약 46조 원)에서 오는 2037년까지 시장규모가 738억2000만달러(한화 약 101조 원)로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아울러 국내에서는 새 정부의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과도 맞물리며 대규모 전력망 투자 확대가 현실화되고 있다. 해당 사업에 따라 620km 초고압직류송전(HVDC)망을 2030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전력기기업체의 케이블 등 관련 제품 수요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인프라 확산과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가 겹치면서 국내 전력기기업체에 우호적인 시장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글로벌 수주 확대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화합으로 새로운 희망을진

울진 너는

푸른 하늘 아래 서 있다.

공기는 더없이 맑고 깨끗하며 미세먼지 없이 자유롭게 흐르고 있다

너는 언제나 신선함이 넘치고 가슴 속 깊이 힘이 솟아 올랐다.

너의 호흡은 시원하고 맑아서 마치 자연 그 자체로 숨쉬는 듯하다.

자연 그 자체로 숨쉬는 곳 - 대한민국의 숨, 울진 울진군

대한민국의 숨, 울진